

핵심쟁점 타결 내용

3000cc 미만 후관세 철폐 '빠 쇠고기' 수입 구두 약속

美 섬유 수입액 기준 61% 즉시 관세 철폐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대화채널 구축

■ 자동차·섬유·무역구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관세가 가장 높은 미국 픽업트럭 시장

(25%)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도 수입관세(8%)를 즉시 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800cc 미만, 800~1천cc, 1천~1천600cc, 1천600~2천cc, 2천cc 초과 등 5단계에서 800cc 미만과 2천cc 초과는 삭제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수세도 현행 10%에서 발효 후 3년 내 5% 이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섬유는 우리측이 당초 요구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측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안포워드)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도 셰이프가드 및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무역 마찰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했다. 특히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간 셰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 15년 걸쳐 철폐 사과·배 20년, 돼지·닭고기 10년 적용

■ 농업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빠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관세철폐 시기는 15년내로 결정됐다. 농업 고위급 협상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설명했고, 미국은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법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도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시기는 계절 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며, 저유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톤 부여하기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유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으며 쌀은 개방 예외대상으로 정해졌다.

성인 원격교육·테스팅 서비스 제한적 개방 법률 5년내 3단계 개방...美로펌 자문은 허용

■ 교육·법률

교육시장은 성인 원격교육 및 테스팅(testing) 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교육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성인 대상 원격교육과 테스팅 서비스의 경우 국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개방

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큰 틀에서는 문호를 열지 않았으나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취업 관련 원격학원 등은 개방하기로 했다. 기타 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테스팅 서비스도 해외유학 등의 목적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이었던 법률(번호사)시장 개방 부분은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하기로 해 '단계적 개방'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되는 1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된다. 또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도 가능하다.

협정 발효 뒤 5년 내 시행키로 약속한 3단계 개방시기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오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타결 공식기자회견에 몰린 국내외 취재진 200여명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시간	최대 쟁점분야 및 협상결과
3월29일 오전 7시 (최초 시선)	자동차 - 우리측: 북 지중해 관세 즉시 철폐, 북측: 일단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 및 한국 배기량 기준 삭제 개량과 기술 표준 안전관 확보 농업 - 우리측: 쇠고기 관세 15년내 철폐 및 양적 관세는 5월 이후 논의, 오렌지 장기 협제, 알로페틴 FTA 공결 섬유 - 우리측: 북 섬유관세 관세 즉시 철폐 및 안포워드 적용, 북측: 수출 물량 증가 시 셰이프가드 도입, 한국 섬유업체의 진보대응
4월2일 새벽 1시	자동차 - 우리측: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 및 픽업트럭, SUV, 승용차 관련 관세 철폐, 북측: 3000cc 승용차와 픽업트럭 관련 관세 철폐, 북측: 3000cc 승용차와 픽업트럭 관련 관세 철폐, 북측: 3000cc 승용차와 픽업트럭 관련 관세 철폐 농업 - 북측: 우리측 관세 철폐(안포워드)에 대해 추가 협제 요구 - 우리측: 쇠고기 관세 철폐, 오렌지 관세 철폐,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 핵심 품목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서는 우리측이 양보
4월2일 오후 1시 (최종 시선)	자동차 - 3000cc 승용차와 픽업트럭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5년내 관세 철폐 합의 농업 - 쇠고기 40% 관세 15년내 철폐, 오렌지 관세 철폐,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는 비수확기에 걸쳐 단계 관세 철폐(안포워드) 허용(현재는 현행관세 유지), 알로페틴, 알로페틴, 알로페틴 등 양측 합의 철폐 섬유 - 미국 수출 물량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합의, 원사 기준 적용대역 범위 및 우회수출방지 합의

저작권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스크린쿼터는 '현재 유보' 추가 규제 없어

■ 문화산업

문화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를 차지하는 초강국 미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작가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미국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부담이 더 커졌다. 더구나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용자들의 편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온라인 등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를 개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해 사용하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

는 '기술적 보호장치'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일시적 저장'이나 '기술적 보호장치' 등에서 교육이나 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합의해 웹서핑 등에서 예상했던 이용자 불편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스크린쿼터는 향후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현재유보'로 결정돼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도 사실상 폐지돼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은 미국에 완전 개방됐다. 이렇듯 문화산업분야는 주고받기 식보다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인터넷·전화 국경간 금융거래 제한적 허용 다국적 제약사 점유율 커져 약값 오를 듯

■ 금융·의약품

금융분야에선 막판까지 쟁점이 된 단기 외환 셰이프가드(일시송금 제한)를 도입키로 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영업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

는 국경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 등이다.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하는 신 금융서비스의 경우 법 개정시 필요 없는 상품에 한해 개방하되 건별로 금융감독 당국이 허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약품은 우리 측이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우리 측은 미국의 3대 핵심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제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의사신청 절차를 마련해 주고,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를 연계하며, 유사약품(similar product)을 포함한 신약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선진 7개국의 약값 수준에서 신약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추식기자 who@kwangju.co.kr

한미 FTA 협상타결

1588-7557
후 우 협 1588-7557

자유로운 가치관과 부강한 나라!
공공의 이익이 자유롭다!

이제부터는 한미 FTA 협상타결로
자유로운 가치관과 부강한 나라!
공공의 이익이 자유롭다!

1. (100)1000원 (100)1000원
2. (100)1000원 (100)1000원
3. (100)1000원 (100)1000원
4. (100)1000원 (100)1000원
5. (100)1000원 (100)1000원

한미 FTA 협상타결

1. (100)1000원 (100)1000원
2. (100)1000원 (100)1000원
3. (100)1000원 (100)1000원
4. (100)1000원 (100)1000원
5. (100)1000원 (100)1000원

한미 FTA 협상타결

1. (100)1000원 (100)1000원
2. (100)1000원 (100)1000원
3. (100)1000원 (100)1000원
4. (100)1000원 (100)1000원
5. (100)1000원 (100)1000원

한미 FTA 협상타결

1. (100)1000원 (100)1000원
2. (100)1000원 (100)1000원
3. (100)1000원 (100)1000원
4. (100)1000원 (100)1000원
5. (100)1000원 (100)1000원